

ISU

2021 AUTUMN VOL. 106

INSIDE

이슈를 잡아라

①素人 김준성 도서전

②브라운스톤 Brand Identity 리뉴얼

이슈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줘!

OUTSIDE

이슈튜브

극한지식의 세계

이슈 테이블

민초단과 할매니얼 그리고 로제 마니아

스페셜 리포트

도대체 라방이 뭐길래?

도서전
素人 김준성



Contents

01

Cover story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
<素人 김준성 도서전>

수십 편의 소설을 출간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문학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았던 김준성 명예회장을
소설가로 재조명한다.

05

INSIDE

05 Focus & News

08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도서
<90년생이 온다>

10 이슈를 잡아라 1

素人 김준성 도서전

16 이슈를 잡아라 2

브라운스톤 Brand Identity 리뉴얼

22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박지윤 사원(이수페타시스 생산관리팀)
조재은 사원(이수시스템 ERP시스템)

24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28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줘!
권보영 과장(주)이수 경영지원팀)
박성준 대리(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박동훈 사원(이수화학 GB2팀)

33

OUTSIDE

33 이수튜브

극·한·자·식의 세계
지금까지 이런 YOUTUBE 채널은 없었다!

40 이수 테이블

민초단과 할매니얼,
로제 마니아의 입맛을 공략하라

44 스페셜 리포트

자동차에서 부동산까지 팔아요~
도대체 라방이 뭐길래?

50 ISU PLACE

관람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 미술관

54 옴부즈맨

55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1년 가을호 통권 106호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정구·신기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멤즈(양예슬) 이수엑사켄(박지웅) 이수AMC(이건우)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우인재, 디자이너 김소현

인쇄 캠프로세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화학

'2021 스마트팜 코리아' 참가



지난 6월 17일 이수화학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2021 스마트팜 코리아'에 참여해 스마트팜 사업 부문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수시스템도 해당 박람회에서 스마트팜 핵심 기술인 'SmartRoot(복합환경제어)'를 선보였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9년 준공한 중국 이닝시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재배에 성공해 현재 중국 및 CIS국가(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이수건설

울산 대한유화 온산공장 부타디엔 증설 착공



지난 7월 29일 이수건설이 플랜트 부문의 대한유화 'NEO-2 & KBD PROJECT OFF-SITE' 건설공사의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해당 공사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134) 내에 부타디엔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Ball Tank 3기(10,800KL) 외 기타 부대시설 공사이며 오는 2023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8월 25일에는 플랜트 부문에서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3부두 액체화물 저장시설(9기) 증설공사 수주도 이어졌다.

이수시스템

재원산업 변경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



이수시스템은 지난 8월 '재원산업 변경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수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변경관리 솔루션은 화학공장에서 시설 및 설비 수리, 교체, 신설 등의 변경 작업이 일어날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의 심사 기준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이수시스템의 변경관리 솔루션은 재원산업 외에도 롯데케미칼에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SK트리캠은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있다.

이수창업투자

한국자동차연구원과
MOU 체결



이수창업투자는 지난 8월 27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이수창업투자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 전략 사업 분야 투자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그룹 내 높은 시너지가 기대되는 미래차 관련 스타트업과의 연계도 추진하며, 4차 산업과 관련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앱지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기술진
용인 백신공장 방문



지난 8월 20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앞두고 이수앱지스 용인 백신공장에 러시아국부펀드(RDIF) 기술진이 방문했다. RDIF 계약담당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스빈초프 이사와의 스베틀라나 바에바 수석전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이수앱지스의 백신 생산 시설 제조 라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생산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수앱지스는 국내 컨소시엄 중 가장 먼저 RDIF 및 지엘라파와 '스푸트니크V' 위탁 생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수엑사캠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4일, 이수엑사캠이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원준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4명이 참석했으며, 20년간 이수엑사캠을 이끌어온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사와 함께 장기근속자, 모범상, 공로상 시상도 이어졌다. 원준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직원 모두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자"라는 뜻을 전했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이드 90년생이 온다

저 자 임홍택

출판사 웨일북

“

90년대생은 태어나면서 이미 인터넷에 능숙했고 20대에 이미 모바일 라이프를 즐겨온 ‘앱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 하며, 참여를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는 점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하지요. 다가올 세상을 움직이게 될 90년대생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책 <90년생이 온다>를 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90년대생은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른바 ‘9급 공무원 세대’로 불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 기성세대의 대응은 그저 피상적인 이해 혹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리더가 될 90년생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허들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 그들의 세대를 규정하는 특징을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미래를 이끌어 갈 90년대생은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트렌드를 이끄는 큰 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아직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알아듣기 어려운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피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90년대생은 회사와 제품에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나 소비자로서는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가르치려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제품과 기업을 외면하는 등 이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자는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90년대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활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랄까요. 여러분이 마케터라면 시장의 새로운 고객인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 담당자일 경우 앞으로 기업의 일원이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인사 관리 가이드와 함께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90년대생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출생자들에게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도 넉넉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90년대생 역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곧 기성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일해야 할 직장 동료이자, 향후 수십 년간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본 코너 추천도서는 향후 이수그룹 리닝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素人 김준성 도서전

영원한 현역, 그의 서재를 들여다보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현역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자서전 <두 대의 양말 기계가 놓인 풍경>에 적어 내려간 작가의 말은 김준성 명예회장의 인생을 오롯이 함축하고 있다. 그는 은행과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의 관료로 일했으며, 문학인으로 소설 집필에 매진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천했다. 삶과 문학세계를 고스란히 담은 <素人 김준성 도서전>이 스페이스 이수 내부 전시실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 素人 김준성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 은행장과 총재, 부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소설가까지. 이수그룹 회장 김준성 명예회장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이력은 다채롭다.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을 설립해 초대 행장을 지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의 은행장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1982년에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이후에는 이수그룹 명예회장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다재다능했던 김준성 명예회장의 가장 큰 소망은 문학인으로서의 삶이었다. 소설가이자 시인 김동리의 추천으로 지난 1955년 일찌

감치 소설가로 등단했던 그였기에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소설에 대한 창작욕을 불태우던 그는 1997년 계간 종합 문예지인 <21세기 문학>을 창간하며 새롭고 활기찬 문학 환경을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 또한 '21세기 문학상'과 '21세기 신인상'을 마련해 젊은 문학인들을 육성하고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인간성 상실에 천착했던 문학인

김준성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학교 신문에 단편소설 <이화내>로 1등에 당선되며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52년에는 문예지 <협동>의 문예작품 현상공모에 <닭>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삶을 시작했고, 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 김동리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인간상실>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등단하게 된다.

이후 그는 <비둘기>, <먼 시간 속의 실종>, <사랑을 앞서가는 시간> 등을 발간하며 창작활동에 매진했다. 1986년 '문학사상'에 발표한 <돈 그리기>는 'MBC 베스트셀러 극장'을 통해 단막극으로 방영된 적도 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에 주목했고, 인간의 존재와 총체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았으며, 시대를 증언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

"모순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척결하고 파헤치고 인간세상의 구원을 구하는 그것이 제

문학 정신입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물들었던 노년

나이가 들수록 문학에 대한 열정은 더욱 발화되었고 집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63세부터 10년간 다섯 권의 책을 써내려갔던 열정의 이면에는 혈육에 대한 지극한 사랑도 언뜻 비춰졌다. 생전에 인터뷰를 통해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소설을 씁니다."라는 말에서는 자손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문학평론가 정호웅은 그에 대하여 "많은 작품에서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 한가운데 놓인 사



람들을 보여주며 부조리한 현실을 초월해 순수하고 본원적인 세계를 추구해온 소설가였다"라고 평했다. 이수그룹 반포사옥 1층 이수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도서전은 소설가 김준성 명예회장의 문학인으로서의 삶과 문학적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양한 직업에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삶을 새삼 점검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열심히 하자는 나의 생활철학을 강조하고 싶었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현역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자서전 <두 대의 양말 기계가 놓인 풍경> 작가의 말 중에-





카메라, 라디오, 손목시계 등의 소품에서 소탈했던 작가의 성정이 느껴진다



계간 종합 문예지 <21세기문학>의 창간은 보다 나은 문학적 풍토를 만드는 일에 기여했다

<素人 김준성 도서전>의 풍경

2021.8.24 ~ 10.31



전시관 입구에는 작품들의 표지, 연혁, 문구를 넣어 제작한 엽서가 놓여있다



인터뷰, 사진, 글로 구성된 영상을 통해 김준성 명예회장의 문학인으로서의 삶을 접할 수 있다

작가의 육필 원고에는 돋보기 너머에서 거듭했을 작가의 고뇌가 담겨있다



리뉴얼 게임

혁신이
없다면 사라질 것이다



브라운스톤 Brand Identity 리뉴얼

지난 2002년 브랜드 론칭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태어난 '브라운스톤 BI 리뉴얼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자산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테일에 디테일을 더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 오징어게임 속 게임만큼이나 치열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한 직원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주거문화 브랜드를 선도할 '브라운스톤'의 리뉴얼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리뉴얼 게임, “혁신이 없다면 사라질 것이다”

참석자: (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조요한 팀장, 김현중 대리, 이홍권 사원, 이수건설 설계팀 황휘태 팀장, 권혁정 대리

편집자

최근 이수건설 브랜드 브라운스톤이 BI(Brand Identity) 리뉴얼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이수 브랜드전략팀과 이수건설 설계팀 관계자를 모셨는데요. 브라운스톤의 BI 리뉴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 팀장

브라운스톤은 지난 2002년 론칭한 이수건설의 브랜드로서 약 20년간 주거문화 브랜드로 사용되었는데, 최근 치열해진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라운스톤이 가진 고급이미지의 자산을 계승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번 리뉴얼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부터 기획되었습니다.

황휘태 팀장

네. 이수건설도 2002년 브랜드 론칭 이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부터는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방향성을 결정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번에 새로운 BI가 완성되어 기쁘

네요. BI 리뉴얼의 취지가 외부에서 잘 읽힐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해야겠죠. 그러려면 아파트나 모델 하우스 등 여러 사례를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중 대리

네. 맞습니다. 이수건설의 여러 유관 부서와 직접 논의해 본 결과, 브라운스톤이 그간 축적해온 고품격 브랜드로서의 자부심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이 참에 TV광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임직원도 계셨습니다. 약 15년정도 됐지만, 아직도 그 시절 브라운스톤 CF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편집자

저도 그 광고가 기억나네요! 이번에는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요한 팀장

사실 브라운스톤 리뉴얼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운스톤은 2002년 론칭과 함께 당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4년만에 공식 소비자조사에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5위까지 올라가며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남았지만, 주택문화의 변화와 소비자 및 주거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재활성화(Revitalization)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타 건설사들도 생존을 위해 수 차례씩 아파트 브랜드 BI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를 재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도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 활력을 불어넣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편집자

리뉴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무엇 인가요?

조요한 팀장

기존 브라운스톤이 쌓아온 '브랜드자산을 유지하 면서도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있는 노포 맛 집을 보면, 대부분 예전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십 년 된 맛집의 간판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예전의 그 분위기가 나진 않겠 죠. 어쩌면 맛집의 장소나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오래된 그릇, 남루한 의자, 짝이 안 맞는 젓가락과 같이 소소한 모든 것들이 맛집의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큰 의미에서 브라운스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그 동안 잘 쌓아온 브라운스톤 만의 브랜드 자산이 오롯이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 다. 멋진 배우가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하면 아주 세심하게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브라운스톤도 잘 만들어진 멋진 브랜 드이기에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리뉴얼은 '재탄생'이 아닌 '재활성화'에 포커스를 두었습니 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웃음)

김현중 대리

브라운스톤의 한계라고 생각한 '클래식', '품격'을 헤리티지(Heritage)라는 가치에 담고 시각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기존 자산을 계승하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기준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 에 여러 방향으로 분석해보고 시도해보면서 리뉴 얼의 결을 잡게 되었습니다.

조요한 팀장

기존 브라운스톤 미는 그 무엇보다 헤리티지 아이 덴티티를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대저택 심볼에 서 느껴지는 클래식과 우아한 세리프에서 느껴지는 품격은 제거되어야 할 요소가 아닌, 심플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요소로 판단했어요. 다만 브 라운스톤이라는 국문 워드마크와 블루계열의 BI 컬러는 리뉴얼 대상 1순위였습니다.

편집자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홍권 사원

야근 식대가 많이 나왔구요.(웃음) 이렇게 진행하 는 방향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스터디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내 타 아파트 브랜드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전문 컨설팅 용 역업체의 도움 없이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 로젝트를 소화했기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 리뉴얼 사례 분석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진행해 나 가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김현중 대리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 B2B 등 국내 외 기업의 브랜드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과정이 난해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양이 방대했기 때문이죠. 약 5~6개월 동안 다양한 브랜드 리뉴 얼 사례를 분석했고, 그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의 밑바탕이 되었 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행당 동 브라운스톤 현장(2005년 준공)에 방문했을 때 숨어있는 브랜드 자산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Brown Stone
브라운스톤

기존 BI




Brown Stone

리뉴얼 BI



브랜드 사례나 현장에서 보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사례들을 찾아내기 마련인데요. 나무 정자의 지붕, 단지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 나무 철판 지지대 등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구석에 브라운스톤 DNA를 반영한 브랜드 자산이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수건설 직원들의 정성을 발견한 것 같아서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혁정 대리

BI가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단순히 보여지는 부분 이외에도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 간판, 조명 하나하나 손질이 가야 합니다. 수많은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재질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숙제가 많이 있는 셈이죠.

편집자

시공과정에서 리뉴얼 된 브라운스톤 브랜드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황휘태 팀장

모델하우스에 먼저 적용을 했는데요. 브라운 골드 컬러가 색상에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톤을 맞추기도 까다로웠습니다. 조명형과 비조명형 모두 구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심볼도 단순화되었고 서체도 모던해져서 가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브라운 골드 컬러의 금속 재질이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BI에 대해서는 경영진 분들과 임직원 분들의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편집자

새로운 BI가 적용된 모델하우스나 현장 방문 후에 느낀 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조요한 팀장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빛나는 브라운스톤 로고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금속재질이어서 빛났겠지만, 제 눈에는 마치 무대위에 조명을 받는 것처럼 빛나더라고요.

김현중 대리

맞아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과물로 나온 것 같아 기분 좋았어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미지가 현실 속에 구현되었을 때의 짜릿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이흥권 사원

저는 '아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라고 느꼈어요. 모델하우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때마다 브라운스톤 로고가 보이는데 정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 편집자 주: 지금까지 브라운스톤 BI 리뉴얼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생물 같은 존재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겠죠.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BI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윤 사원(이수페타시스 생산관리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좋아하는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 사진을 남길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뮤지컬이 시작되기 직전 공연장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티켓부스에는 기대감에 들뜬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있고, 포토존 앞에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관객들이 잔뜩 몰려든답니다. 그 인파 속에서 남긴 바로 이 사진은 제 최애 뮤지컬 톱 5에 드는 <팬레터>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 여운을 주는 가사,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하게 만드는 매력이지요. 특히 '거울'이란 넘버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강렬한 사운드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오는 11월 <팬레터>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되찾고 싶은 분들은 티켓팅에 한 번 도전해보세요!

#취미생활 #뮤지컬팬레터 #삶에가장설레는순간



조재은 사원(이수시스템 ERP시스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 여름휴가

저는 유난히 더위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 때문에 여름이 오기도 전에 계절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어지죠. 많은 사람이 여름휴가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름휴가의 의미에 대해 선배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배님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답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려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주고 수고한 나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름휴가는 정말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번 여름휴가 기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지난 반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올해 다녀온 강릉 안목해변에서 찍은 사진에 담긴 제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름휴가 #힐링 #강릉여행 #안목해변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에 놓치지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새파란 하늘과 상쾌한 아침 공기가 계절의 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혹은 사회나 가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그들이 사이다 상담소를 찾은 사연은 무엇인지, 카운슬링 토크에 귀기울여 볼까요?

Q

출퇴근 할 때 지하철, 버스 등에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승용 대리
(이수화학 영업지원팀)



함승용 대리

대리님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심현석 대리

네 그러네요 덥지 않아서 출근할 때 마스크 쓰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함승용 대리

요즘 출퇴근할 때 주로 무얼 하며 시간 보내세요? 뭔가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인데요

심현석 대리

출근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인 만큼, 그에 맞는 취미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통독하는 일을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별로 기사 전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요.



함승용 대리

그럼 퇴근할 때도 신문 기사를 읽고는 하시나요?

심현석 대리

아닙니다. 퇴근 시간까지도 꼭 보람 있게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하는 등의 즐거운 낭비를 추천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것도 좋겠죠. 사실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 아닐까요?



함승용 대리

최근 읽은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절도 딱 독서하기 좋은 가을이니 말예요

심현석 대리

천명관 작가의 <고래> 읽어보세요. 최근 한국 소설은 문장의 예술성에만 몰입하여 정작 읽는 재미인 이야기의 힘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편인데요. 이 소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풍부한 상상력과 이를 그려내는 글의 전개 속도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하나 더 추천 드리자면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을 권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세상은 지혜가 잘 녹아 있는 책입니다.

A

심현석 대리
(이수페타시스 사업기획팀)

Q

코로나19로 인해 자기계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환철 대리
(이수페타시스 사업기획팀)



김환철 대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집이나 회사 말고는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진섭 대리



저의 경우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답답한 현실 상황을 핑계로 자기계발에 소홀했어요. 예전에는 출근 전 새벽 강의를 수강한다던지, 퇴근 후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상적인 형태의 자기계발은 줄어드는 듯해요.



김환철 대리

그렇다고 자기계발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떤 방법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계신가요?

박진섭 대리



최근에는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소수정예 온라인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큼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의무감으로 인해 꾸준히 독서를 하게 되고, 책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합니다.



김환철 대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계발의 방법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학원이나 모임 같은 오프라인 활동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혹은 웨비나(웹 세미나), 유튜브 시청이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박진섭 대리



맞습니다. 저는 '삼프로TV'라는 주식 유튜브 채널로 공부하며 주린이 탈출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영상 편집 등 N잡이나 재테크에 도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러닝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환철 대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확 달라지면서 관심사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피상적인 자기계발이 아닌 수익창출과 직무향상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자기계발에 힘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진섭 대리



네 그렇죠.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수 가족들은 요즘 다채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이수그룹 러닝센터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A

박진섭 대리
(이수화학 R&D2팀)

Q

평소 출장을 갈 때마다 아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보다 알찬 출장을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은범 대리
(이수시스템 Smart 사업팀)



김은범 대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장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김은범 대리라고 합니다. 출장을 알차게 다녀오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신동완 과장



안녕하세요 대리님! 우선, 제 기억 속의 출장은 '부담'이라는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나 직장 상사와 함께 갔던 출장이 대부분이었고, 출장 전의 준비 과정부터 출장 이후 보고와 비용 처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기에 한 번도 만만한 출장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범 대리

아 과장님도 출장은 부담스러우셨군요.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입니다.

신동완 과장



어떤 출장이든 주어진 목적이나 기대하는 결과물은 확실하게 있게 마련입니다. 파트너와의 미팅, 시장 조사, 답사, 세미나 참석 등이 그렇겠죠. 1차적으로 그러한 목적들은 잘 수행하는 것이 알찬 출장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출장 전에 팀장님 또는 팀원들에게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출장 막바지인 마지막 날 밤에 다시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3일간의 출장에서 핵심 성과는 첫째 A이고, 둘째 B이며, C와 D를 진행해야 합니다'하는 식으로 요약된다면 알찬 출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은범 대리

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필수 팁인 것 같습니다.

신동완 과장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을 과하게 들고 뛰거나 차선을 넘나들거나 하지 마세요. 혹시 출장에서 다치면 본인과 팀원은 물론 가족에게도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출장은 목적이 잘 달성되는 안전한 출장이 되기를 바랄게요.

A

신동완 과장
(㈜이수 Open Innovation 팀)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줘!

누구나 한 곡 정도는 인생 땀곡이 있게 마련이다. 기분 좋은 순간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노래, 운치 있게 비 내리는 날 감성을 한껏 자극하는 노래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노래까지. 우리의 고막을 책임져 줄 이수 가족들의 인생 음악을 들어볼까?



저의 인생 최애곡들 함께 들어보실래요?

권보영 과장 | ㈜이수 경영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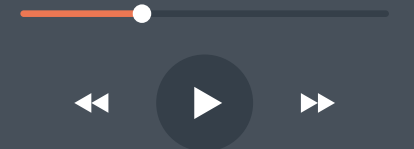
저는 세 곡의 노래를 추천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곡인 Eagles의 'Hotel California'입니다. 1976년 발표 됐는데 기타 선율이 멋져서 자주 듣는 곡이에요. 개인적으로 1994년 라이브를 가장 좋아해요. 이 버전이 여행지의 광장에서 흘러 나왔을 때 일행 모두가 우두커니 서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곡은 마마무가 부른 '하늘 땅 바다만큼'. 아이들 중에서는 특히 마마무의 노래를 즐겨 듣는 편인데 노래 실력이 출중하고 좋은 곡도 많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죠. 최근 발표된 신곡인데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Sia의 'Chandelier'를 추천할게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모 브랜드 향수 광고 음악으로 나와 반가웠어요. 계속된 실패 끝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노래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슬픈 느낌의 곡이지만 그 사연을 알고 들으니 희망이 느껴졌어요.

comment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정말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만으로 고르려니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이적, Little mix, Kiana Ledo, Billie Eilish, 범키의 노래 어떨까요?

Hotel California

Eagles 5집 'Hotel California'(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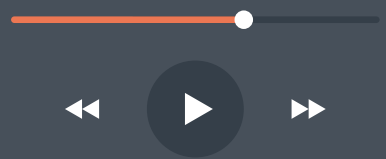


나만의 추천 땀곡 리스트

-  비포 선라이즈
이적
-  Word Up!
Little mix
-  EX
Kiana Ledo
-  wish you were gay
Billie Eilish
-  The Lady
범키

Celebrity

아이유 5집 'LILAC'(2021)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 도망가자**
선우정아
- 별 보러 가자**
적재
- 꼭 이만큼만**
캐스커
- 밤편지**
아이유
- 사랑이 잘(With 오혁)**
아이유

우리 모두는 반짝이는 별 같은 존재입니다

박성준 대리 | 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올해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도 어느덧 5년차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걸어야 할 다양한 갈래길이라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유가 부른 'Celebrity'를 추천합니다.

직장인은 매일 비슷한 루틴이 존재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보면 어느새 수개월에서 몇 년이 흘러가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해외나 국내 여행까지 제한되다 보니, 일상에서 리프레시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Celebrity'라는 노래는 현실에 지친 사람들과 타인의 기준에 맞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너는 별난 사람이 아닌 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거든요. 너무도 흔한 어느 평일 퇴근길에 버스에서 울컥하며 들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comment

다섯 가지 추천곡들은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이나 새벽 산책길에 듣는 편입니다. 편하게 듣기보다는 무언가 그 노래와 가사에 몰입할 수 있는 곡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절친의 결혼식 축가로 불렀던 뜻 깊은 노래

박동훈 사원 | 이수화학 GB2팀

얼마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혼자 여동생을 돌보았고, 대학까지 보내며 열심히 살았던 친구가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에게 축가를 부탁했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는 노래였어요. 친구의 연애 스토리와 가장 흡사했고 신부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제 친구의 마음이 잘 전달될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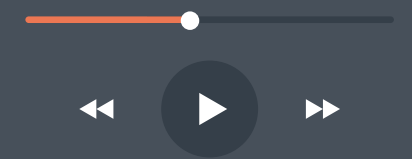
가사가 반복적이라 외우기 쉬운 편인데다 드라마 <프로듀사> 주제곡으로 더욱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평소 발라드를 즐겨 들어서 더욱 의미 있는 노래로 마음에 자리 잡은 거 같아요. 특히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던 너를 비춰줄 거야"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 친구가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항상 지켜주며 바라보고 싶습니다.

comment

발라드를 즐겨 듣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연애 감성이 피어날 때라면 '봄을 노래하다', '이상하다', '잔잔하면서 조금은 슬픈 가사를 원한다면 'Thinking About', '12월', '사실 나는'을 들어보세요.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김범수 '프로듀사' OST(2015)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 봄을 노래하다**
40
- 이상하다(Acoustic Ver.)**
박효신
- Thinking About**
빈센트
- 12월**
김준수
- 사실 나는(남자 Ver.)**
전건호

극·한·지·식의 세계 지금까지 이런 **YOUTUBE** 채널은 없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채널들을 수식하는 단어에 '전문성'이 추가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 보고 있다. 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들만 나열하며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분야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신뢰가 간다.



OUT
SIDE



댈님의 생활 속 금융 이야기

내 자산 똑똑하게 모으고 지키는 방법

전직 은행원 출신 유튜버인 댈님(‘대리님’의 줄임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채널이다. 코로나 19와 함께 사회 전반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 및 재테크 소득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태. 서점에 나가보면 가장 잘 보이는 판매대에는 금융이나 주식 관련 책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까닭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짚어주기에 책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댈님의 생활 속 금융 이야기는 재테크, 재무상담, 금융은 물론 경제뉴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신용점수 높이는 팁, 재테크 초보를 위한 알기 쉬운 설명, 위클리 금융 트렌드 등 다양한 금융 및 재테크 정보가 카테고리 별로 풍부하다.



신사임당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강추!

구독자 수 150만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경제 전문 채널이다. 전직 방송국(한국경제TV) 프로듀서 출신인 운영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경제 전반에 관한 상식들을 소개한다. 운영자의 이력에서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방송국을 퇴사한 뒤 자영업으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공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진출해 이마저도 성공시켰다. 이처럼 실전과 지식이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기에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초창기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운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제학적 변수를 최대한 고려해 사업에 임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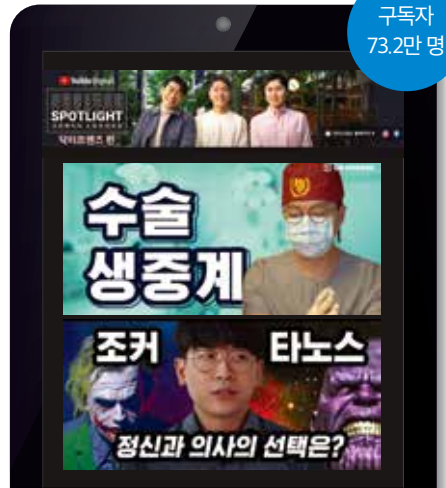


창업에 대한 궁금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류 '창업다마고치'와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부동산 정보를 재밌게 다루는 '반차'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닥터프렌즈

세 의사 친구들의 알기 쉬운 의학 상담

병원은 치유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내게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염려 때문에 의학상담을 받으러 가는 일이 병원으로 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 내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이 모여 결성한 닥터프렌즈는 이처럼 어렵고 무서운 의학상담에서 탈피해 우리 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자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다. 세 명의 의사의 친구 혹은 가족처럼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구독자 수가 73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도 좋다. 단순히 의학상담 혹은 의학정보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다채로운 테마를 다루고 있다.



구독자
73.2만 명



닥터프렌즈는 별도의 홈페이지(doctorfriends.co.kr)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건강 칼럼 연재와 다이어트 및 건강 전반에 관한 게시판을 통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과학쿠키

쿠키처럼 친근하고 맛있는 과학

과학이 인문학 수준의 쉽고 재밌는 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유튜브 채널이다. 과학을 쿠키처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채널명을 지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하고 교사로 재직했던 커리어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인 물리학을 중심으로 어려운 공식으로 가득한 과학을 그림과 영상을 동원해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장점. 예를 들어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꼼꼼하고 치밀한 구성이 돋보인다. 또한 EBS 다큐멘터리와 YTN 사이언스 등에도 출연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는 <과학을 쿠키처럼>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구독자
38.3만 명



진화론의 진실을 파헤친 '당신이 알고 있는 진화론은 틀렸다'를 추천한다. 지구에 바다가 생겨나고 이후 그 속에서 탄생한 유기체가 진화를 거듭해 지구의 여러 생명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과정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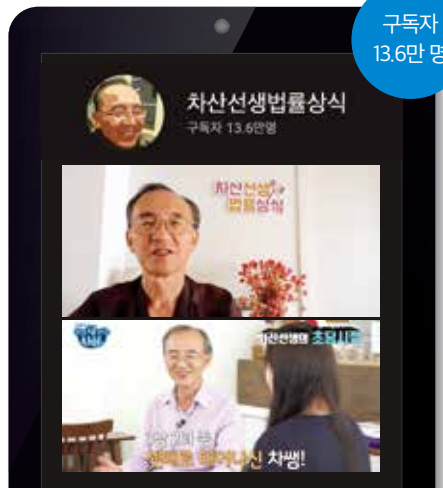




차산선생 법률상식

대법관 출신 유튜브의 법률 어드바이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법률 전문 채널이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대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이 운영한다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 퇴직 명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반려견과 관련된 사례'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사람들이 참고하기 좋은 판례, 법률 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얼마 전 일상생활 속의 법 이야기를 책으로도 펴냈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EBS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가 바로 소문난 악플 청정 구역인가요?' 유튜브 영상에는 악플이 달리기 마련이지만 차산선생 법률상식 채널은 예외다. 전직 대법관 출신 법률가에게 어설픈 악플을 달았다가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북튜브, 당신의 책 큐레이터

정보 과잉의 세상 속에서 '책'에 담긴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시대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 관련 유튜브 채널의 세계로 안내한다.



일당백

일당백 | 18.9만 명

'일생동안 읽어야 할 백 권의 책'을 소개하는 채널로 역사, 교양, 인문학 등 다채로운 종류의 책들을 3명의 패널들이 소개한다.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어 있어 운전하거나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민음사TV

민음사TV | 6.64만 명

민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책보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표방하고 있다. 출판사 마케터가 하는 일, 문화 생활비 언박싱, 출판사 비하인드 스틸 등 재미있는 출판사, 책 이야기로 가득하다.



겨울서점

겨울서점 | 21만 명

책과 책 주변을 둘러싼 다채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서평에 해당하는 '분석과 한 줄 평'은 물론 영화 배우, 가수 등의 게스트가 출연하는 '책크 메이트'도 재미있다.



편집자K

편집자K | 2.62만 명

15년차 출판 편집자가 운영하는 채널. 출판사 편집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책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민초단과 할매니얼, 로제 마니아의 입맛을 공략하라

팬데믹으로 외식도 쉽지 않은 환경은 미식가들에게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그 외중에 민트초코와 들기름, 로제 소스는 집콕 세프들에게 뜻밖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시중에 파는 식재료에 한두 가지 비법을 더하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는 푸드 레시피를 소개한다.



올해 상반기를 핫하게 달궜던 식음료계의 키워드는 '민트초코'와 '들기름' 그리고 '로제'였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민초단'이라는 마니아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민트초코는 가을을 맞아 커피와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들기름은 막국수와 만나 할머니 입맛을 가진 MZ세대를 사로잡았다. 핑크빛의 로제 소스는 파스타 대신 가장 한국적인 식재료인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과 만나 의외의 신선한 맛을 선보여 주었다.

민트잎 특유의 허브 향과 달콤한 초콜릿이 조화된 민트초코는 호불호가 갈리는 자극적인 맛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흥미진진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독특한 맛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의 집단인 '민초단'이 등장하자 치약 맛으로 깎아내리는 반 민초파와 함께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다양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트초코는 점점 더 다양한 조합의 레시피로 민초단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시작해 쿠키, 마카롱 그리고 민트초코 라떼 등으로 대유행

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 입맛'이라는 뜻이 담긴 '할매니얼'들은 들기름과 간장 소스만으로 버무린 심플한 레시피로 탄생시킨 '들기름 막국수'에 매료되었다. 경기도 용인의 지명을 따서 작명한 '고기리 막국수'가 그 시초로 알려진 들기름 막국수는 메밀면에 특제 간장소스와 고소한 들기름을 섞어 버무려 먹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막국수다. 새콤달콤한 붉은 양념장 혹은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는 것이 시그니처 레시피로 여겨지는 보통의 막국수와는 결 자체가 다르다. 오투기가 바로 이 화제의 메뉴를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초기에는 품질 사태가 빚어질 만큼 인기가 좋았다.

'로제' 소스도 빠질 수 없다. 한때 크게 유행했던 로제 파스타에는 우유, 크림, 토마토소스 등을 섞어 장맛빛이 감도는 소스가 반드시 들어간다. 파스타에만 들어가던 로제 소스는 최근 국민 간식인 떡볶이와 라면까지 점령했다. 라면에 로제 소스를 넣은 퓨전 요리는 아예 로제 소스 볶음면이라는 상품이 등장했을 정도라고 한다.



고기리 안 가도 돼요?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의 핵심은 간장소스에 있다. 1인분 기준으로 간장 2숟가락, 설탕 ½숟가락, 물 3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면 소스 완성! 삶은 뒤 찬물에 행군 메밀면에 간장 소스를 붓고 김가루와 다진 통깨를 얹은 뒤 잘 비벼주면 된다.

재료 메밀면, 간장, 설탕, 물, 들기름(혹은 참기름), 통깨, 김가루



민초단도 반한 가을의 맛

민트초코 라떼

가을은 커피의 계절 아니던가. 라떼와 민트초코의 결합은 민초단을 흥분시키는 환상의 조합이다.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우유와 섞어 라떼를 만든 뒤 시중에 판매하는 민트초코 파우더를 더하면 간단하게 민트초코 라떼가 완성된다.

재료 카페라떼(에스프레소 + 우유), 민트초코 파우더, 애플민트 허브 잎

우아하고 신박한 퓨전 음식

로제 신라면

로제 소스의 빛깔을 내기 위해 프라이팬에 우유와 고추장을 넣어 가열하며 섞은 뒤 신라면의 분말 수프와 건더기, 썰은 양파, 비엔나소시지를 추가해 4~5분 정도 끓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라면 수프를 절반 정도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료 신라면, 우유, 고추장, 양파, 비엔나 소시지



자동차에서 부동산까지 팔아요~ 도대체 **리방**이 뭐길래?

온라인 커머스, 버티컬 커머스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홈쇼핑은 지고 라이브 커머스는 뜬다. 연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일명 리방(라이브 방송)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은행 금융상품은 물론 신차를 리방으로 소개 및 판매하고, 서핑으로 핫한 양양 바닷가의 리조트 역시 리방으로 분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재밌으면 무조건 팔린다'고 하는 리방을 알아본다.

글_ 김태진(칼럼니스트)



리방으로 쇼핑의 큰손을 잡아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비대면을 일상화시켰다. 음식 배달에서 부동산 분양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주문과 쇼핑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장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흥미가 느껴지지 않으면 외면하는 소비자, 이른바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예능 프로그램만큼 재밌는 라이브 커머스에 꽂혀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IT 분야의 발달과 함께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가 흔히 리방(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라 부르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한 유통업체들은 실시간 동영상인 리방을 시청하는 소비자가 댓글을 이용해 전달하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마치 현실 속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이다.

한발 앞서가는 IT 플랫폼 기업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먼저 뛰어든 선발주자는 유통업체가 아닌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은 소비 시장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업체들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물 등의 기존 전

판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방송의 틀이나 격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고 재밌는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객과 소통해 서비스나 제품 판매 방식 등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과거 쇼호스트라고 불렀던 진행자를 샵테이너(쇼핑몰 + 엔터테이너)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처럼 '재밌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차이점이다.

라이브 방송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샵테이너를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CJ ENM이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 전문 채널 다이아(DIA) TV는 지난해 오디션을 통한 샵테이너 발굴, 업무 협약을 통한 전문가

육성 라이브 커머스 시너지 패키지 개발 등 라이브 커머스에 특화된 쇼호스트 매니지먼트 및 커머스 비즈니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다이아 TV는 이를 위해 유명 쇼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샵테이너 발굴을 위해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라이브 방송이 천편일률적으로 재미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무신사 라이브 방송의 경우 IT 플랫폼 기업이나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라이브 방송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 모델과 함께 무신사 자체 상품기획자, 에디터 혹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여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발에서 부동산까지, 다채로운 판매 상품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 상품의 종류도 긍정적인 신호다. 의류, 신발, 먹거리 등 익숙한 카테고리의 제품은 물론 은행 금융상품과 자동차를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 및 판매하는 사례가 그렇다.

최근에는 부동산도 리방으로 판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최고의 서핑 스팟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의 해변 리조트가 우선 예약권을 리방으로 분양한 것. 소정의 금액으로 우선 예약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총 436실 규모의 리조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호실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이 90%를 넘어서는 국내 여건에서 기인한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인 10~50대로 한정할 경우 보급률은 98%에 육박한다. 20%에 달하는 높은 구매 전환율과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의 쇼핑 과정 등이 이를 증명해 준다.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란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을 말한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의 쌍방향 소통은 데스크톱 PC나 노트북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장점인 즉시성을 지니고 있다. 실시간 댓글로 채팅이나 놀이하듯 진행되는 방송 콘텐츠는 미래의 큰손인 MZ세대에게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향후 2년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9조 원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람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 미술관

미술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옛 관습에서 벗어나, 상업지구나 도심의 녹지 한복판에 들어서거나 일반 건물에 들어선 뒤 특화된 전시회들을 유치하며 젊은 층으로부터 핫플레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것. 전통적인 회화 영역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 아트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의 곁으로 다가온 미술관 세 곳으로 안내한다.

스페이스 이수
그라운드시소
마이아트뮤지엄

스페이스 이수 Space ISU

이수그룹 반포 사옥의 로비에 오픈한 갤러리 스페이스 이수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예술 공간을 지향한다. 150여 평의 공간에서는 현대미술을 비롯해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개관과 함께 열린 <레조넌스>를 시작으로 <퀘도공명>, <라이트 하우스> 그리고 옥승철 작가의 개인전 <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시회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일상을 큐레이팅하는 공간'을 모티브로 하는 스페이스 이수는 평범한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숨어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각기 다른 컬러를 지닌 4명의 작가가 한데 모인 <사물의 풍경>(10월 개최)은 그러한 맥락에서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4
070-7737-7067 | www.isu.co.kr/kor/culture/spaceisu.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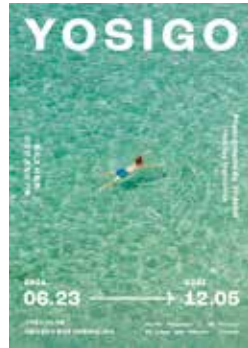
사물의 풍경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10월 1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사물의 풍경>이 개최된다. 밍에스 프로젝트, 서윤정, 연진영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직조해 나가고 있는 창작자들을 소개하고, 새롭고도 낯선 '일상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물의 '능동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상상해보자.



그라운드시소 Ground seesaw

전시 제작사인 미디어엔아트가 론칭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개관과 함께 <유미의 세포들 특별전>,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고 있는 그라운드시소는 그 이름처럼 기다란 널빤지 모양의 놀이기구인 '시소'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전에 보았던(see) 것을 새롭게 다시 보는 (see) 플로우를 전시에 녹여내고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의 균형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라운드시소는 역사, 예술, 문화가 만나는 종로구 서촌, 대규모 상업시설 '성수낙낙'에 위치하는 성동구 성수동, 극장의 미래를 제안하고자 문을 연 명동 등 세 곳에 전시공간을 조성하였다.



NOW.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그라운드시소 서촌에서 오는 12월 5일까지 개최되는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은 지중해 주변의 휴양지에서 마이애미, 두바이, 부다페스트 등 전 세계의 여행지를 담은 350여 점의 사진들을 건축, 다큐, 풍경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이 사진들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팬데믹 이전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삶의 온기로 피로를 잊고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6길 18-8 | 1522-1796 | www.groundseesaw.co.kr



마이아트뮤지엄 My art museum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B1
02-567-8878 | www.myartmuseum.co.kr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에 위치하는 미술관으로 서양의 명화를 비롯해 패션, 건축 디자인, 장식 예술 등 시대와 장르를 넘어선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앙리 마티스 같은 거장은 물론 미국의 작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이아트뮤지엄은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의 세계를 대중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갤러리 내에는 전시회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아트샵을 비롯해 카페, 체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에듀샬롱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NOW.

빛이 머무는 자리

마이아트뮤지엄에서는 현재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개최 중이다. 10월 24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를 통해 리얼리즘 기법 화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공립 도서관 등이 소장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작 3점을 포함해 대형 유화 및 파스텔화 8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귀담아 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엽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기대하면서

이수그룹의 미래 동력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넥스트 챌린지 오픈 이노베이션' 기사를 주의깊게 읽었습니다. 벌써 출범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그룹이 유망 스타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권도영 사원(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로 연재되기 시작한 이수 플레이리스트를 매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추천곡들이 대부분 좋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사연도 가슴에 와닿아서 깊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네요. 제가 몰랐던 곡들도 많아서 스마트폰에 따로 목록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대리((주)이수 HR팀)



비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네요

이번 여름호에서는 비건 관련된 기사가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네요. 평소 단계별 비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세분화되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제육볶음처럼 반드시 고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음식도 비건 푸드가 가능하더니 놀라기도 했어요.

송채현 사원(이수화학 GB1팀)



메타버스의 세계는 정말 놀랍네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아주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목차를 읽다가 스페셜 리포트 제목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실의 나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가 되어 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곧 실현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영빈 사원(이수엑사퀸 영업2팀)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기나긴 집콕 생활의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컬러링 응모작



문지성 차장
(이수화학 기술1파트)



임정희 대리
(이수앱지스 RA팀)



김명주 대리
(이수화학 인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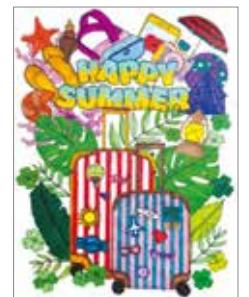
이정환 과장
(이수화학 프로젝트팀)



김은숙 팀장
(이수페타시스 연구2팀)



윤창득 기정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AO)



이관형 주임
(이수화학 제품운영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컬러링을 한다



인증샷을 찍는다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1년 여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은숙 팀장(이수페타시스 연구2팀)
김명주 대리(이수화학 인사팀)
고영빈 사원(이수엑사퀀 영업2팀)
권도영 사원(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문지성 차장(이수화학 기술1파트)
송채현 사원(이수화학 GB1팀)

이진우 대리((주)이수 HR팀)
이관형 주임(이수화학 제품운영파트)
이정환 과장(이수화학 프로젝트팀)
임정희 대리(이수애플리스 RA팀)
윤창득 기정(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AO)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창업 하수일?

10.08 -
11.07

이수그룹 사내벤처 1기

이수화학
김정우 과장

이수엑스켄
박현진 대리

이수화학
김두환 대리

이수건설
김태현 차장

이수건설
권자용 대리

NEXT ISU

NEXT ISU는 이수그룹 임직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내벤처 육성 과정으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라도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Open Innovation 프로그램입니다.

#이수그룹 임직원 누구나 #제한 분야_제한 없으며, 어떠한 분야라도 가능 #지원 기간_2021.10.08 - 2021.11.07 #지원 방법_㈜이수 오픈이노베이션팀 담당자 이메일 접수 (Teams 공고 게시판 내 양식 활용) 이은영 차장(ley1207@isu.co.kr), 신동완 과장(davidshin@isu.co.kr) #혜택_최대 1년간 사업개발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워크샵, 세미나 등 다수 프로그램 제공 / 사업 개발비·시장 조사비 제공 / 투자자 대상 Demoday(사업발표회) 기회 제공 / Spinoff(분사) 시 그룹 투자